

통아보기
상하이 황포탄에서
일제 침략의
거두를 응징하다

만나보기
황포탄의거 그 후
남겨진 사람들

이달의 독립운동가
군산 3·1운동을
이끈 사람들



의열투쟁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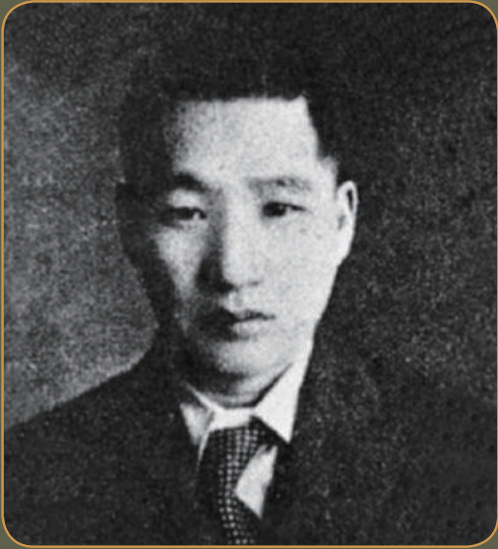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03



독립기념관

◆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김익상(金益相)

1920년 의열단에 가입하여 일제기관 파괴와 핵심인물 사살이
곧 조국독립의 첩경이라 여겼다.
이듬해 9월 조선총독부 청사에 폭탄을 투하하였고
1922년 3월 중국 상하이 황포탄 지역에서
육군대장이자 남작인 다나카 기이치를 향해 총탄을 발사하였다.
이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오랜 세월 옥고를 치렀다.
1936년 출옥해 귀향하였지만,
다시 일제 경찰에게 연행되었고 이후 종적이 묘연해졌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월간 독립기념관을 웹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2022 March Vol. 409

03



www.i815.or.kr

※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독립기념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물)

※ 월간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11-8551001-000092-06
ISSN 1227-5883
등록일 1988년 3월 19일 천안라00001

발행일 2022년 3월 1일
발행처 독립기념관
발행인 한시준

편집인 신용관
편 집 신하윤(sunny@i815.or.kr)
편집위원 고명재, 권동운, 오세호, 유서현, 이봉근, 이정희, 정경민, 정현희, 홍동현

思 생각

04 들어가며

황포탄의거 100주년

06 돌아보기

상하이 황포탄에서
일제 침략의 거두를 응징하다

10 만나보기

황포탄의거 그 후 남겨진 사람들



人 인연

14 이달의 독립운동가

군산 3·1운동을 이끈 사람들

18 독립운동 사적지

전북 군산 3·1운동 만세 현장

20 아름다운 인연

민족주의 역사가 장도빈과
실천적 여성운동가 김숙자

24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삼일절을 맞아 그려보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내일



通 소통

26 독립의 발자취

영화 <보드랍게>, 감독 박문철

30 세계 산책

필리핀 독립운동의 뿌리
호세 리살 Jose Riz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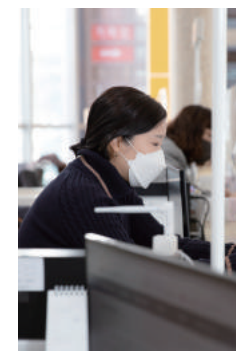
32 기념관은 지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독립기념관입니다

36 기념관에 보내온 소식

한류를 넘어
K-Spirit을 향하여

38 독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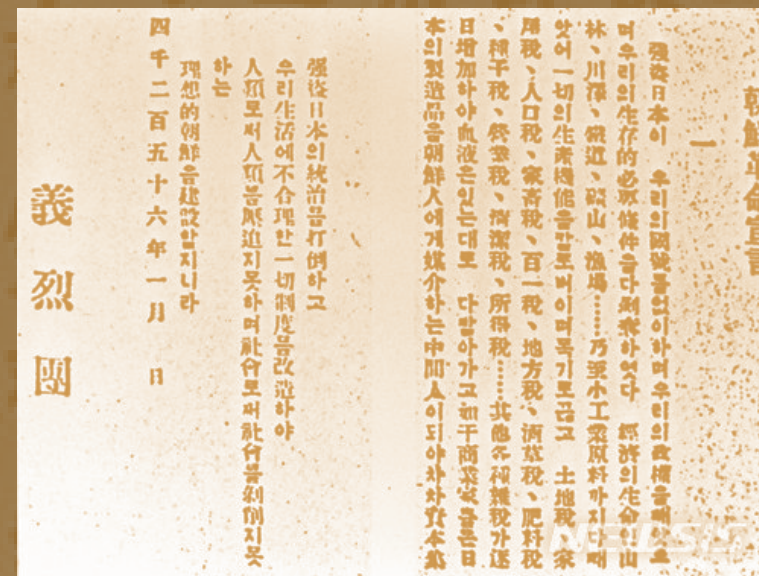
1922년 3월 28일, 지금부터 100년 전

황! 중국 상하이 황포탄 지역에 굉음이 퍼졌다.

여객선에서 내리던 일본군 육군대장이자 남작인 다나카 기이치를 향해
총탄 네 발이 연속으로 날아들었고, 뒤이어 폭탄도 투척되었다.
총을 든 자는 의열단원 김익상과 그의 동지 오성륜, 이종암이었다.
총탄은 간발의 차이로 다나카를 빗나갔고,
애석하게도 미국인 스나이더 부인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비록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이들의 항일투쟁은 조선총독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소문은 경성을 넘고 한국을 건너, 세계 곡곡으로 퍼져나갔고
꺼져가던 독립의지에 다시금 불씨를 지폈다.

2022년 3월, 1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조국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며
조선총독부에 대항한 김익상의 의열투쟁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때이다.
김익상을 비롯한 의열투쟁에 앞섰던 의열단원들은
정의로운 폭력으로 빼앗긴 나라와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다.
이는 신채호가 강령한 『조선혁명선언』에 잘 드러난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암살·과포·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신채호가 강령한 『조선혁명선언』(1923) 중

의열투쟁은 우리민족의 울분과 억압된 자의식을 표출한 효과적인 항일독립운동 방략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점에서 의열투쟁은 테러와 다르다. 테러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고
공격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삼아 선량한 시민을 희생시키지만, 의열투쟁은 응징 대상을
침략의 중심부인 일제기관과 핵심인물로 특정하였다. 의열투쟁은 죽음을 무릅쓰고 인류에게
자유와 정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민족의 대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상하이 황포탄에서 일제 침략의 거두를 응징하다



김익상

1922년 3월 28일, 김익상은 의열단의 일원으로 일본군 육군대장이자 남작인 다나카 기이치 사살을 결행하였다. 중국 상하이 황포탄에서 동지 오성륜, 이종암과 함께 순차적으로 다나카를 저격하였으나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황포탄의거는 성패 여부를 떠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항일정신'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 지금부터 100년 전 독립의지가 담긴 총성이 울려 퍼진 장소, 황포탄으로 들어가 본다.



임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 기록된 김익상과 의열단원
(오른쪽 작은 사진 김익상, 뒷줄 왼쪽부터 이성우·김기득·강세우·곽재가·김원봉, 앞줄 정이소)

치밀한 거사 계획의 시작

김익상(金益相)은 1920년 중국 베이징에서 인생의 큰 분수령이 된 의열단 단장 김원봉(金元鳳)을 만나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19년 11월 창단한 의열투쟁 독립운동 조직인 의열단은 이 시기 본격적으로 '암살·파괴'투쟁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후 김익상은 1921년 9월 11일 국내로 잠입하였고, 다음 날 12일 오전 10시 20분경 전기시설 수리를 하러 온 것처럼 가장하고 남산 기슭에 있는 조선총독부 청사로 들어갔다. 전광석화처럼 빠른 동작으로 먼저 2층에 있는 비서과(秘書課)에 폭탄을 던지고, 이어 회계과에 폭탄을 던졌다. 비서과에 던진 폭탄은 폭발하지 않았지만, 회계과에 던진 폭탄은 큰소리와 함께 폭발하여 여러 명의 일본 헌병들이 놀라 뛰어올라왔다. 김익상은 이들에게 "2층으로 올라가면 위험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태연하게 조선총독부 청사를 빠져나왔다. 이후 베이징으로 돌아간 김익상은 1922년 2월 3일 상하이로 가서 김원봉을 만나 다시 거사 계획을 협의하였다. 이때 김원봉의 소개로 동지 오성륜(吳成崙)을 만났다. 그때 마침 '일본군 육군대장이자 남작(男爵)인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가 필리핀을

방문한 뒤 3월 28일 상하이에 도착한다'는 보도가 났다. 정보를 입수한 의열단은 다나카를 사살하여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온 천하에 알릴 것을 결정하고 치밀한 거사 계획을 세웠다. 다나카는 1920년 10월 일본 당국이 조작한 '훈춘(琿春)사건'과 한인 무장세력 탄압을 이유로 중국 연변(북간도) 지방에 침공하여 수많은 한인 동포들을 학살한 '간도 대학살(일명 경신참변, 혹은 간도참변)' 당시 육군대신(육군상)을 맡고 있었다. 또한 1919년 3·1운동의 무력탄압과 이른바 '간도지방 불령선인(不逞鮮人) 초토(剿討)계획'의 수립과 실현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많은 한인들의 학살에 관여하여 책임이 있는 인물이었다. 의열단원들은 '다나카를 누가 처단할 것인가'를 의논하였고, 김익상은 물론 의열단 동지인 오성륜, 이종암(李鍾巖) 등이 '다나카를 처단하겠다'고 나섰다. 논의 끝에 결국 '명사수'로 알려진 오성륜이 제1선에서, 김익상이 제2선에서, 이종암이 제3선에서 권총과 폭탄(수류탄)을 준비하여 차례대로 다나카를 저격하기로 계획하였다. 특히 김익상은 이미 '조선총독부청사 투탄의거'라는 큰일을 결행했기 때문에 김원봉은 이번 거사 기회를 오성륜에게 먼저 주기로 하였다.

황포탄에 올려 퍼진 총성

김익상·오성륜·이종암 이 세 사람은 거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1922년 3월 27일 아침 6시 상하이 황포탄(黃浦灘) 부두에 나가 현장을 점검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하루를 기다린 끝에 3월 28일 오후 3시 30분, 다나카 일행이 탄 고급 여객선이 황포탄 세관부두로 접안하였다. 여러 여객과 함께 걸어 나오는 다나카를 본 오성륜이 먼저 권총으로 2발의 총탄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나카를 앞서 건넌 미국인 스나이더 부인이 총탄에 맞고 말았다. 놀란 다나카가 황급히 대기 중인 자동차로 도망치자 두 번째로 김익상이 권총으로 2발을 쏘았지만, 모자만 꿔뚫고 지나가 버렸다. 김익상은 이어서 다나카에게 폭탄(수류탄)을 던졌으나 폭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뒤에 있던 이종암이 다나카가 탄 자동차에 폭탄을 던졌지만, 그것을 본 영국 경찰이 폭탄을 강물 속으로 차버리는 바람에 거사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의거 직후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껏 도주하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오성륜은 현장 부근 쓰촨로(四川路)에서 체포되었고, 김익상 역시 추격하던 영국 경찰이 쏜 총탄에 손과 발을 맞아 중국 순경에 붙잡혔다. 이종암만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다. 김익상은 피신 중에 중국 순경이 달려들자 하늘을 향해 총을 쏘서, 무고한 희생을 막겠다는 의열투쟁의 정신과 자세를 보여주었다.

법정투쟁 그 이후

경찰에 붙잡힌 김익상과 오성륜은 일본총영사관에 구금된 뒤 가혹한 심문을 받았다. 김익상과 오성륜은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감옥에 분리되어 수감되었다. 그러나 5월 2일 새벽 2시경 오성륜은 함께 있던 일본인 죄수 다무라 주이치(田村忠一)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감옥을 탈출하여 상하이 외곽으로 피신하였다. 이에 당황한 상하이 일본총영사관은 ‘5만 원’이라는 당시 기준으로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오성륜 체포에 혈안이 되었지만, 끝내 오성륜을 잡지 못하였다. 일본 당국은 김익상을 곧바로 일본 나가사키(長崎)로 압송하였는데, 오성륜의 탈옥에 놀라고 사건의 파장을 염려하여 서두른 것이었다.

김익상은 나가사키지방법판소에서 무기징역을, 나가사키공소원(長崎控訴院)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24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다시 여러 번 징역이 감형되어 1936년 8월 2일 가고시마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출옥 후 얼마 지나지않아 일제 경찰에 연행된 김익상은 현재까지 종적이 묘연하다. 또한 탈옥한 오성륜은 러시아 유학을 한 뒤 1926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혁명운동과 한국독립운동에 참가하여 항일투쟁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만주지역에서 동북항일연군의 고위 간부로 활동하다가 1941년 1월 말 만주국 토벌대에 체포되어 투항, 변절하고 말았다. 반면 이종암은 중국과 고향인 대구 일대를 왕래하면서 계속해서 의열단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종암



김익상·오성륜의 다나카 기이치 사살 시도를 다룬 기사, 『동아일보』(1922.4.7)



오성륜



이종암

은 1925년 11월 5일 경북 달성군 달성면(현 대구시 달성) 소재 이기양(李起陽)의 산장에서 일제 경찰에 잡히고 말았다. 결국 그는 1926년 12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고 이후 감형되어 1930년 5월 28일 대구형무소에서 출옥하였지만 병고로 순국하고 말았다.

한편 황포탄의거로 불행하게 아내를 잃은 미국인 스나이더는 이후 김익상과 오성륜 등이 조국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하여 분투하는 투사임을 알고 일본사법당국에 ‘김익상 등을 관대하게 처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일본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자 임시정부 외교총장 조소앙은 일본 정부의 우치다(內田康哉) 외무대신에게 강력한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주요 내용은 ‘이번에 김익상을 사형에 처할지라도 이후에 또 무수한 김익상이 생겨날 것’이라는 전언이었다. 실제로 조소앙의 서한대로 한국인들의 저항은 그치지 않았고, 중국 상하이 등지에서 의열투쟁은 계속되었다.

김익상은 피신 중에 중국 순경이 달려들자

하늘을 향해 총을 쏘서, 무고한 희생을 막겠다는 의열투쟁의 정신과 자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김익상의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육군 중장 시절의 다나카 기이치(임경석 제공)



김익상 출옥 기사, 『한민』(1936.8.29)

황포탄의거 그 후 남겨진 사람들

황포탄의거 이후 일제 경찰에 체포된
김익상은 오랜 세월 옥고를 치렀다.
김익상이 살아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린
아내 송씨, 동생 김준상은 일제의 감시,
굶주림과 싸워야만 했다. 한편 오성륜의
오발로 일본군 육군대장 대신 총을 맞은
미국인 스나이더 부인의 남편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감내해야 했다. 우리가
그동안 조명하지 못한 황포탄의거 이후
남겨진 사람들과 희생자들의 이야기에
주목해본다.



김준상의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힘겨운 삶을 이어나간 김익상의 가족들

김익상 체포 이후 아내 송씨, 딸, 동생 김준상(金俊相) 등 그의
가족들은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였다. 동생 김준상은 황포탄의
거 이전에 거행된 조선총독부의거를 도왔다는 혐의로 일제경
찰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이후 일제 감시와 생활고에 시달
린 김준상은 1925년 6월 6일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김익상의
동갑내기 아내 송씨는 어린 딸과 연전 세상을 떠난 김익상 형
의 아들을 홀로 키우다가 재가하였다. 황포탄의거 이후 4년이
지난 1926년 2월 13일, 음력 설날을 맞이하여 동아일보 기자가
서울 용산 부근의 이태원리(현 이태원동)에 살고 있던 아내 송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김익상 아내 송씨



김준상의 극단적 선택을 보도한 기사, 『동아일보』(1926.6.9.)

“마침 어린 딸 ‘점석(7세)’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앉았던 송씨
는 찾아간 기자를 향하여 “어느 때나 생각이 안나겠습니까마는
설을 당하면...” 하고 말을 끝맺지 못하고 치마고름으로 눈물을
씻더니 다시 말을 계속하여 “그래도 언제나 나오리라는 말이나
있어야지요? 모진 목숨으로 나혼자 살면 무엇이요? 생각하면 가
슴만 막힙니다.” 하고 한숨을 짓더니 철모르고 웃는 어린 딸의
웃음을 어루만지며 “생전에 만나볼 것 같지 않아요. 어린 딸이나
알뜰히 키웁니다.” 하고는 다시금 살아가는 형편 이야기를 한
다. “애 아버지가 칠년 전에 집을 나간 뒤로는 작년 여름에 돌아
간 작은 시아주버니(김익상 동생 김준상)가 집안살림을 하였습
니다마는 지금 나혼자 어린 조카(김익상 형의 아들) 기복이가 연
병정(練兵町) 저울회사에서 벌어오는 것을 가지고 올케(김준상
아내)를 데리고 네 식구가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이 생각 저 생
각 할수록 가슴만 아프고 감옥에 있는 애 아버지 생각뿐이에요.
설이라고 우리집은 이 모양입니다. 감옥에 있는 이를 생각하면
먹는 것도...” 말끝을 떨며 어린 딸을 안고 기자를 문밖까지 보
내주었다.”

김익상 아내 송씨 인터뷰 중 (『동아일보』 1926.2.17.)

인터뷰 내용을 보면 송씨는 김익상의 형과 동생이 생활고와 일
제 당국의 탄압으로 잇달아 사망하거나 자살하여 어린 조카 김
기복이 벌어오는 생활비로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김익상 아내 송씨 인터뷰,
『동아일보』(1926.2.17.)

수 있다. 이 때문에 송씨는 결국 재가하여 김익상과는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사의 빛이 아니라 그늘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가족들의 사연은 매우 비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던
항일 여성운동가들의 모임인
대한애국부인회는 스나이더
부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이를 위해 ‘비단’에
영문으로 ‘스나이더 부인의 죽음을
도상(悼想)하노라’라는 문구를 수놓은
‘자수(일종의 만장[輓章])’와 조의를
담은 ‘위문서간’을 남편 스나이더에게
전달하였다.

오성륜과 대조적인 행적을 펼친 박영자

오성륜의 아내는 박영자로 알려졌다. 1910년생으로 추정되는 박영자는 일찍 중국 동북지방(만주)에서 조선공산당 만주조직원으로 활동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1930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박영자의 부모는 1930년대에 일제 탄압으로 희생되었다. 그는 경북 안동 출신의 항일투사 김노숙의 친밀한 전우로서 1931년에 중국공산당 반석현(磐石縣)위원회에서 부녀회 사업을 맡았다. 이후 중국공산당 계열의 동북인민혁명군 독립사 사령부, 동북항일연군 제2군 군부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중국인 양정우(楊靖宇)가 이끄는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사령부에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싸우는 전투원으로 항일투쟁을 벌였다. 박영자는 인자하고 쾌활한 성격과 더불어 전투 때는 매우 용감하게 싸워 동지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군과 괴뢰 만주국군 등의 탄압으로 1940년 전후 시기 만주 항일세력이 거의 괴멸되고 말았다. 그는 중국인 조아범(曹亞範)이 이끄는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방면군 사령부에서 활동하다가 1941년 4월 경 백두산 부근의 몽강현(濛江縣)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미 투항한 남편 오성륜 등의 귀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끝에 결국 목이 잘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피살되고 말았다. 말년에 일제에 투항하고 변절하여 일본 당국과 괴뢰 만주국 당국에 협조한 남편 오성륜의 행적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박영자는 마치 영화 ‘암살’의 주인공과 같은 용감하고 장렬한 전사의 늠름한 기개와 불굴의 용기를 보여주었다.

한편 이종암의 아내는 서희안으로 알려졌다. 이종암이 약관의 나이에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국내외 각지를 누비느라고 술하에 자녀도 없었다. 안타깝게도 서희안의 행적은 잘 알 수 없다.

항일독립투사를 지지한 스나이더

황포탄의거 당시 미국인 스나이더 부인이 오성륜의 오발에 맞아 사망하는 유감천만한 일이 발생하였다.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부근의 브라질 마을에 거주하였던 그는 상하이에서 남편 스나이더와 함께 신혼여행을 즐기는 중이었다. 한순간에 아내를 잃은 스나이더는 황포탄의거를 거행한 김익상, 오성륜, 이종암에 분노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조국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하여 분투하는 투사임을 안 스나이더는 일본사법당국에 ‘김익상 등을 관대하게 처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황포탄의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22년 4월 어느 날,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감옥에 갇혀 엄중한 심문

을 받던 김익상과 오성륜을 면회하였고, 오히려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던 항일 여성운동가들의 모임인 대한애국부인회는 스나이더 부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이를 위해 ‘비단’에 영문으로 ‘스나이더 부인의 죽음을 도상(悼想)하노라’라는 문구를 수놓은 ‘자수(일종의 만장[輓章])’와 조의를 담은 ‘위문서간’을 남편 스나이더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스나이더는 1922년 4월 10일 대한애국부인회 회장 김순애에게 편지를 보내 인사를 전하였다.

“그 아름답고 기이한 예물을 당신들이 손으로 만들어 사랑과 동정의 기념품으로 주었으니,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편지 쓸 임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가져다가 내 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죽은 그의 많은 친구들로 하여금 그것을 볼 때마다, 당신들이 이처럼 꽃다운 예물을 ‘스나이더’에게 준 것을 기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상하고 또 빛나는 귀 회의 결의를 나는 늘 기억하여 잊지 않으려 하고, 또 이를 세상에 드러내려 하는 동시에 귀 애국부인회에 대하여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다른 많은 친구(다 나에게 초면이었음)들의 말은 도리어 내 마음을 놀리게 할 뿐이었으나,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일은 나의 찢어진 마음에 큰 감격을 주었습니다.

나의 심정과 감상을 귀 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 회의 여러 직원들을 만나 보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들을 만나볼 기회를 잃은 것을 대단히 후회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거듭 감사하며, 아울러 일반 회원들에게 향하는 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을 당신들의 심정이 스스로 해석할 줄로 믿습니다.”

스나이더가 대한애국부인회 회장 김순애에게 보낸 편지,
『독립신문』(1922.6.3.)

불의의 총격으로 희생된 부인의 죽음으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나이더는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동정과 이해를 표시하며 매우 정중하고 너그러운 신사의 아량을 보여주었다. 한편 대한애국부인회의 현명한 대처는 독립운동사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였다.



스나이더 부인



스나이더 편지 내용을 보도한
『독립신문』(1922.6.3.)

군산 3·1운동을 이끈 사람들



이두열(李斗烈)
1888~1954
함남 영흥
애족장(1990)



고석주(高錫柱)
1867~미상
전북 옥구
애족장(1990)



김수남(金壽男)
1900~1967
전북 군산
애국장(1990)



**윌리엄 린튼
(William A. Linton)**
1891~1960
미국
애족장(2010)

군산 3·1운동을 주도한 교사들 ‘이두열·고석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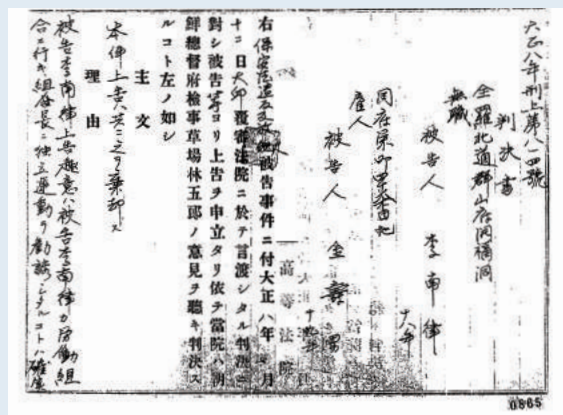
1919년 2월 말 서울에서 유학 중이던 군산영명학교(현, 군산제일고등학교) 졸업생을 통해 3·1운동 계획을 들은 영명학교 교사 이두열, 멜볼딘여학교(현,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교사 고석주는 동료 교사, 학생들과 함께 3월 6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각종 문서들을 비밀리에 준비하였다. 그러나 거사 전 3월 4일 새벽 발각되어 일제 경찰에 이두열과 고석주 등이 연행되었다. 체포를 면한 다른 사람들은 거사를 하루 앞당긴 3월 5일 군산 3·1운동을 전개하였고, 일제는 헌병대까지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이두열과 고석주는 각각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들의 공적을 기리며 1990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3·1운동 참여를 저지한 식민지 교육에 항거한 노동자 ‘김수남’

군산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김수남은 3·1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준비하며, 노동자, 학생들에게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군산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의 방해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자 김수남은 3월 23일 군산공립보통학교에 불을 지르며 식민지 교육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출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 경찰에 체포된 김수남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김수남의 공적을 기리며 1990년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군산 영명학교 학교 건물 (1910년대)



김수남 판결문 (1919.07.12)_국가보훈처 제공



군산공립보통학교 학교 건물 (1910년대)



군산 3·1운동 참가자 재판 결과를 보도한 『매일신보』 (1919.04.16.)

“

3월 1일 전국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한 인파가 쏟아져 나왔다.

폭력이나 무질서는 없었다. (...) 수천 명의 항일운동가들이 총검에 짓밟혔으나 누구도 (폭력적) 저항을 하지 않았다.

윌리엄 린튼 기고문 중 (1919.05.)

”

미국에서 3·1운동을 증언한 영명학교 교장 ‘윌리엄 린튼’

1912년 군산영명학교의 교사로 부임하여 1917년 교장으로 임명된 윌리엄 린튼은 군산 3·1운동의 전개과정과 일제의 탄압을 목격하였다. 1919년 봄,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애틀랜타에서 열린 남장로교 평신도 대회에 참석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한국인의 저항을 증언하였으며, 지역신문인 『애틀랜타 저널The Atlanta Journal』에 한국의 상황을 기고하였다. 1930년대 후반 전주 신흥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던 중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한 윌리엄 린튼은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리어 2010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전주 신흥학교 폐교 청원 소식을 보도한 『동아일보』 (1937.09.09.)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애틀랜타 저널The Atlanta Journal』에 실린 린튼의 기고문 (1919.05.)

군산 3·1운동을 전개한 이두열·고석주·김수남·윌리엄 린튼



1

서울에서 3·1운동 준비가 한창이던 1919년 2월, 김병수로부터 서울의 3·1운동 준비 소식을 들은 영명학교 교사 이두열과 멜볼딘여학교 교사 고석주. 이들은 동료 교사·군산예수병원 직원·구암교회 신자·영명학교 학생들을 모아 3월 6일 군산 장날에 맞춰 만세운동을 펼쳐기로 결의하였다.

2

영명학교 교장 윌리엄 린튼의 손밀한 지원 아래 이두열과 고석주는 영명학교 등사판을 이용해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며 시위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거사 하루 전 3월 4일, 첩보를 들은 일제 경찰들이 시위 준비 현장을 기습하였고 이두열과 고석주는 체포되어 각각 징역 3년형과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3

동료 교사들을 비롯한 군산예수병원 직원·구암교회 신자·영명학교 학생들은 거리에 나가 보란 듯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뿌리며 시위를 개시하였다. 군산 민중들도 함께 군산경찰서로 몰려가 만세를 외쳤으나 일제는 헌병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무력으로 잔혹하게 탄압하였다.



4

군산 3·1운동의 열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노동자 김수남은 동료들을 비롯한 군산 지역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만세운동을 일으켜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산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은 삼엄한 감시로 학생들을 억압하며 시위를 방해하였고, 이에 분노한 김수남은 동료 이남률과 함께 군산공립보통학교 건물에 방화를 일으켜 일제 식민지 교육에 저항하였다. 방화 이후 일제 경찰에 붙잡힌 김수남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5

한편, 군산의 치열한 3·1운동 현장을 알리려는 노력은 바다 건너서도 이어졌다.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간 영명학교 윌리엄 린튼 교장은 애틀랜타에서 열린 남장로교 평신도 대회에서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과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통치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하고, 지역신문에 기고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렸다. 한국 독립운동을 알리고 지원하고자 한 린튼의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6

교육계·종교계·노동계가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전개한 군산 3·1운동은 건민족적, 건민중적 봉기라는 3·1운동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군산 3·1운동을 전개한 네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이두열·고석주에게 애족장, 김수남에게 애국장을, 2010년 윌리엄 린튼에게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전북 군산 3·1운동 만세 현장

전북 군산에서의 독립만세시위는 1919년 3월 5일에 기독교 계 사립학교인 영명학교(永明學校)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영명학교 졸업생이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학생인 김병수(金炳洙)가 2월 26일 독립선언서 100장을 가지고 영명학교 교사 이두열(李斗悅)·박연세(朴淵世)·송정헌(宋正憲)·고석주(高錫柱)·김수영(金洙榮) 등에게 전하였고, 이들은 학교 기숙사에서 선언서 3천5백 장을 더 인쇄하여 기독교 신자들에게 돌리고 널리 인근 지방까지 나누어 주었다. 이어 이두열·이준명(李俊明)·김성은(金聖恩) 등은 영명학교 학생 김영후(金永厚)·송기옥(宋基玉) 등에게 지시하여 기숙사 2층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3월 6일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으나 3월 5일 거사계획이 발각되어 새벽 군산경찰서의 무장 경찰 수십 명이 주모자인 이두열·박연세를 체포하였다. 이에 교사 김윤실(金潤實)과 영명학교 학생들은 석방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오전 8시경 학교 교정에 모였다가 미리 준비해둔 3천 5백장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꺼내들고 만세를 부르며 군산 시내로 행진하였다.

보통학교 학생과 많은 교인들이 행렬에 참여하여 시위대열은 500명으로 증가하였고, 평화동·영동을 거쳐 본정 큰 거리를 지나 경찰서에 이르렀을 때에는 1,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군산경찰서 앞에서 구속된 영명학교 교사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제 경찰들은 이를 막기 위해 재향군인까지 출동시키고 이리(현 익산)주재 헌병대에 지원을 요청하여 만세 시위대를 탄압하였다. 이 시위로 인하여 영명학교 교사 이두열은 징역 3년형을, 김수영·박연세는 징역 2년 6월형을, 고석주·김성은·양기준(梁基俊)·유한중(劉漢鍾)·임종우(林鍾祐)·김영상(金永祥)·문재봉(文在鳳) 및 학생 유복섭(劉復燮)·고준상(高俊相)·홍천경(洪天敬) 등 30여 명은 징역 1년 6월형 내지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당시 체포된 사람은 90여 명에 이른다. 군산경찰서는 노동·농민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가 및 독립운동가를 체포·구금한 탄압 장소이기도 하다.

보통학교 학생과 많은 교인들이 행렬에 참여하여 시위대열은 500명으로 증가하였고, 평화동·영동을 거쳐 본정 큰 거리를 지나 경찰서에 이르렀을 때에는 1,000여 명에 이르렀다.

영명학교 3·1운동 발원지

영명학교는 1903년 2월 미국 남장로선교사 전킨(전위렴, W.M.Junkin)에 의해 설립되었다. 1952년 군산영명학교로, 1975년 군산제일고등학교와 군산제일중학교로 분리되었으며, 1977년 군산시 조촌동으로 이전하였다.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영명길 6
위치 고증 『신한민보』 1919년 7월 12일 자, 『동아일보』 1920년 9월 23일 자 및 『이두열 등 37인 판결문』 등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구암동 자치센터 관계자 및 구암교회 원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위치를 확인하였다. 현재는 멸실되어 세풍아파트 105동·107동 일대가 영명학교가 있던 자리이며, 세풍아파트 앞 진입로는 영명학교 이름을 따 영명로라고 이름 지었다.



02-1



02-2

구암교회 3·1운동 근거지

1919년 3월 5일 옥구군 구암리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시위의 중심 역할을 한 곳이다. 구암교회를 모체로 구암유치원·알락소학교(현 구암초등학교)·영명학교(현 제일중·고등학교)·멜볼딘여학교(현 영광중·고등학교) 등의 학교가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모두 3·1운동에 참여하였다. 구암교회는 1893년에 궁밀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ㄱ’자형 건물이었으나 멸실되고 당시의 위치에 1959년 현재의 건물이 신축되었다.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영명길 15
위치 고증 『이두열 등 37인 판결문』 및 『삼일운동비사』 등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 항일정신을 기념하고자 3·1운동 기념관을 설립하고 관련사진 및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03-1



03-2

군산경찰서 터

1919년 3월 5일 전개된 옥구군의 독립만세시위이자 노동·농민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가 및 항일독립운동가들을 체포·구금한 탄압 장소이다.

주소 전북 군산시 중앙로1가 17-1
위치 고증 『독립운동사』 3권과 『이두열 등 37인 판결문』 등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군산부구획확장지도』를 참고하여 위치를 확인하였다. 군산경찰서는 1910년에 신축되었고, 1922년 9월에 증축되었으나 현재는 멸실되어 옛 건물은 사라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찾기

- 01 군산 영명중학교(1910년대)
- 02-1 군산 구암교회 옛 모습
- 02-2 군산3·1운동역사영상관
- 03-1 옛 군산경찰서 건물
- 03-2 옛 군산경찰서 터 3·1운동만세시위지

01



민족주의 역사가 장도빈과 실천적 여성운동가 김숙자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혀 외치다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여성독립운동사 연구가 가속화되어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인물과 사료들이 발굴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역사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 바로 항일언론인이자 국사학자로 널리 알려진 장도빈의 아내 김숙자다.

1894년 태어난 김숙자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에 동료 60여 명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다. 경성여고보는 1908년 한국 최초로 설립된 관립 여학교인 한성고등여학교의 후신으로, 1910년대 당시 조선총독부가 직할하던 유일한 여자고등보통학교였다. 경성여고보 시절 25세 만학도였던 그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우들 사이에서 단연 군계일학이었다.

당시 YMCA 간사였던 박희도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본과생 최은희, 이양진과 사범과생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 이선경 등과 함께 취침 시간을 이용하여 태극기를 만들었다. 1919년 3월 1일 오전 담장을 넘어 날아온 독립선언서가 운동장에 뿌려졌고 학교는 초비상이 걸렸다. 긴급 교직원회의가 열리고 학생들은 귀가를 봉쇄당한 채 외출이 금지되었다. 오후 2시 경성여고보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탑골공원에 퍼진 만세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에 경성여고보 전교생들은 학교대문을 부수고 쏟아져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혀 외쳤다. 이날 32명의 경성여고보생들이 일제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러나 김숙자는 굴하지 않고 3월 5일 펼쳐진 남대문역(현 서울역) 2차 시위에 다시 참가하였다. 경성여고보 기숙생 전원 70여 명은 이날 새벽 사감의 눈을 피해 기숙사를 빠져나와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때 경성여고보생들은 ‘일편단심’을 의미하는 빨간 머리띠를 수천 개 만들어 경성고보생들에게 전달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경성여고보생 만세시위는 당시 장안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김숙자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 3·1운동이 일어나자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독립운동가이다. 이후 고향인 평안북도 영변으로 돌아가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킨 그는 항일언론인이자 국사학자로 활동하며 날카로운 논설로 일제에 맞선 장도빈과 1920년 7월 결혼하였다. 두 사람은 민족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분연히 투쟁하였다.



김숙자와 장도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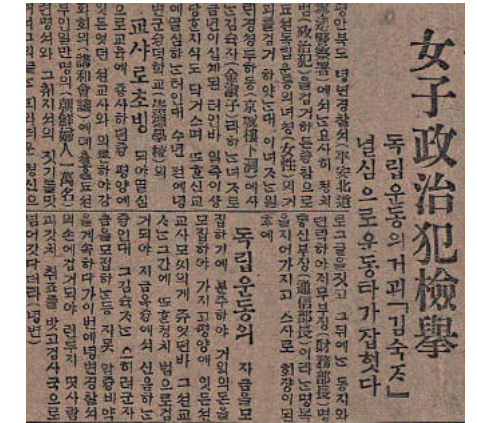
실천적 여성운동가로서 역사무대에 등장하다

조선총독부는 경성여고보 전교생이 1차 만세시위에 참가한 사실에 경악하였고, 3월 10일을 기하여 경성지역에 임시휴교령을 내렸다. 신민화 교육이 실패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향후 있을 학생운동을 막으려는 조치였으나 오히려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김숙자는 고향인 평안북도 영변으로 돌아가 비밀결사체인 대한애국부인회 평북조직책으로 활약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될 당시 그는 임신 7개월이었다. 『매일신보』 1921년 6월 24일자 ‘여자 정치범 검거, 독립운동의 거괴(巨魁) 김숙자’라는 기사에서 활약상을 엿볼 수 있다. 이 기사에는 ‘김숙자는 독립운동 군자금을 비밀리 모집하다가 체포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김숙자는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의 재원이었다. 아버지 김준찬은 광복군 사건으로 투옥한 독립운동가였다. 남동생 김응원은 임시정부의 국내 조직인 연통제 책임자로



김숙자



김숙자 체포 기사, 『매일신보』(1921.6.24)

활약하면서 의열단에서 활동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김숙자는 석방된 이후에도 YWCA를 통한 여성운동활동가로서 여성지위향상과 양성평등권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소양과 도리를 바탕으로 학문에 진념하다

김숙자의 남편 장도빈은 1888년 10월 22일 평안남도 중화군 상원면 신읍리에서 장봉구(張鳳九)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결성이며, 호는 산운(汕耘)이다. 그는 할아버지 장제국(張濟國)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어릴 때부터 엄격한 전통교육을 받았다. 이는 사대부로서 소양을 쌓는 동시에 훗날 국학연구에 진력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적 토양분이 되었다. 도빈의 총명함과 비범한 재주에 놀란 주위 사람들은 그를 신동이라 불렀다. 5세에 한시를 지을 만큼 학문적인 능력이 탁월하였고, 1893년 백일장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그는 유생들 사이 단연 돋보이는 존재로 이르렀다. 더불어 학문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올바른 도리와 소양을 강조한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도빈이 수학에 전념하는 동안 국내·외 정세는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삼남지방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그의 고향에도 개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특히 개신교는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의



료사업과 근대교육을 전국 각지에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정부도 부국강병을 위한 시무책으로 근대교육 시행을 거듭 천명하였다.

근대교육 수혜로 현실을 직시하다

1903년 15세가 된 도빈은 변화하는 시대 분위기에 부응하고자 먼저 평양갑사를 찾아갔다. 갑사는 그를 격려하며 한성사범학교 입학 권유와 동시에 추천서를 써주었고, 그 길로 상경한 도빈은 한성사범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신학문에 대한 그의 열정은 향학열을 고취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재학 중 상동청년학원 교사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역사학에 열중하였다. 1907년 4월 경북 성주공립보통학교 부교원 판임관 7급으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은 그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학문에 몰두하는 한편 국권회복방책을 강구하였다. 국채보상운동 동참은 국권수호를 위한 일환이었다. 도빈은 서우학회 기관지에 기고문을 투고하는 등 근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한매일신보사 기자 겸 논설위원으로도 활약한 그는 보성법률전문학교 야간부에 입학하여 법률을 공부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단재의 독립정신과 역사 의식에 감화되어 한국고대사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쓴 논설은 민족문화의 우수성, 민족의 독립문제, 교육의 중요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도빈은 ‘역사상 우수한 문화를 지닌 국가는 번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대한제국 부흥을 위한 요인으로 신의심 공고, 영혼 중시, 단결심 환기, 모험심 진작, 인종의 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웅대한 고대역사 무대를 답사하다

도빈은 국망 이후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을 모색하다가 1912년 망명길에 올랐다. 북간도를 대표하는 민족교육기관인 명동학교에서 짧은 기간 교사로 재직한 그는 연해주로 이동하여 독립운동가 이상설, 정재관, 이갑 등과 교류하였다. 이듬해 겨울 도빈은 도산 안창호에게 미국행 초청 편지와 여비를 받았으나 신경쇠약 증세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국사』(1916) 국립한글박물관 제공

북간도와 연해주지역에서 펼친 교육과 언론 활동은 도빈이 세계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었다. 고구려와 발해 등의 유적지 답사는 한국고대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신병 치료를 위해 귀국한 그는 국사 연구에 몰두하여 1916년 최초 저서인 『국사』를 출간하였다. 이는 자신의 역사인식을 정리하는 이정표적인 역작이었다. 그는 민족교육의 산실인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당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족정신을 심어줄 민족교육이었다.

출판활동과 역사대중화에 앞장서다

3·1운동 이후 상경한 도빈은 문화계몽운동 일환으로 한성도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는 출판부장으로 잡지 『서울』과 『학생계』의 편집주관을 맡으며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었다. 한성도서주식회사는 ‘우리의 진보와 문화의 증장(增長)을 위하여 시종 노력하기를 자임하노라’라는 목표로 출발하였다. 『조선지광』 발행도 그와 같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출판을 통한 민족정신 양양은 그의 초기일관된 의지였다. 이와 더불어 역사연구도 병행하였다. 식민사가들의 한국사 왜곡과 날조는 그를 더욱 자극하였고, 관심분야인 한국고대사 중 특히 단군조선에 집중하였다. 그는 고대 조선인의 민족혼을 내세우며, 『삼국사기』에 인용된 『고기』를 역사서로 해석하는 등 단군실재론을 강조하였다.

초기 대표적인 저서는 『국사』를 비롯하여 『국사년표』(1917), 『조선역사요령』(1923), 『조선위인전』(1925), 『조선영웅전』(1925), 『조선사대전』(1928), 『조선역사사화』(1932) 등이었다. 이와 병행하여 신문과 잡지 등에도 역사 관련 글을 기고하며 역사대중화에 나섰다. 그는 민족문화 발달과 문무쌍전에 의한 국력신장을 극찬하는 등 식민지하 왜곡된 한국사 복원에 노력하였다. 이는 만주사변 이후 식민지배정책 강화에 맞서 민족정신을 일깨우려는 한 방편이었다. 1931년부터 『동아일보』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개한 조선고적보존운동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1932년 9월 도빈은 『조선사』 연재를 위해 사적지 답사를 떠났다. 수원, 공주, 부여, 경주 등지를 답사하며 사라져가는 역사현장을 안타까운 심정을 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통사에 대한 관심은 타율적인 식민주의사관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민족주의사관 정립에 있다’고 전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의 저서는 62종과 유고 4종 등으로 근대 역사학자 중 가장 많은 역사서를 남겼다.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역사에 나타난 애국심 여부였다.

후세를 위한 한국사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다

광복 직후 도빈은 자주적인 독립국가 수립에 매진하였다. 대한국민총회와 대한독립애국금헌성회 참여 등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세계문화의 수용과 교육식산의 발전이라는 자신의 진화론을 관철하려는 소박한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자주적인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



『민중일보』(1945.9.2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건국실천원양성소 제1기 수업기념

의 일환으로 『민중일보』를 창간하는 한편 우익 진영 세력 결집에 나섰다. 전국문인협회 참여도 이러한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다.

도빈은 건국실천원양성소와 육군사관학교에 출강하여 올바른 민족혼을 알리기 위한 군사교육 보급에도 앞장섰다. 초대 단국대학 학장으로서 민족대학 설립을 위해 혼신을 기울였다. 특히 ‘민족혼을 부활시키는 일이야말로 식민지잔재를 청산하여 진정한 조국광복의 위업을 달성하는 시초’라고 고지하였다. 순국열사봉건회 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홍명희, 정인보, 조소앙, 조완구 등과 선열전기편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선열들에 대한 추모사업은 안중근의거와 3·1운동을 소재로 한 연극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준열사추념기념대회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민족혼을 일깨우는데 노력한 도빈은 선열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기록하고자 한국사료연구회 조직에도 앞장섰다.

광복과 전쟁 이후 공사다망한 환경에도 그의 국사연구는 지속되었다. 단군성적호유회 고문직 수락은 자신의 기나긴 한국사연구를 후세에게 올바르게 전하려는 의도였다. 어쩌면 단군은 갖은 압박과 고난에도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수호신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도빈에게 한국사 연구와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한민족 운명을 일깨우는 길라잡이였다. 정부는 장도빈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삼일절을 맞아 그려보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내일

항일의 역사를 몸소 겪은 장소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경성감옥, 1912년 서대문감옥, 1923년 서대문형무소, 1945년 서울형무소, 1961년 서울교도소, 1967년 서울구치소로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87년 11월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한 뒤 역사성과 보존 가치를 고려하여 보안과 청사, 제9~12옥사, 공작사, 한센병사, 사형장 등만 남겨두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철거되었다. 바로 다음 해인 1988년 2월 국가사적으로 지정(제324호)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8년 11월 지금의 역사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당시 동양 최대 감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에 걸맞게 94,000여 명을 수용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아 있는 4,800여 명의 서대문형무소 수형기록카드를 분석한 결과 87.73%가 소위 사상범으로 분류되어 치안유지법, 보안법, 소요, 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다고 한다. 수형기록카드가 남아있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제외하고도 4,200여 명에 달하는 독립운동가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데, 이들의 형량은 1~4년 사이가 52.65%였고, 10년 이상의 장기수들과 치안유지법으로 인한 사형수도 적지 않았다. 서대문형무소의 사형수만 별도로 보면, 1908년부터 1945년까지 관보를 통해 확인한 숫자가 모두 493명이었다. 이 수치는 전국 형무소 가운데 이곳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그중에는 의병, 의열투쟁, 무장항쟁 등의 활동을 펼치다 순국한 독립운동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인물이 92명(18.7%)인데,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까지 합하면 130여 명에 달한다는 연구 논문도 있다.

3·1운동에 국한하면 1919~1920년 사이에만 1,013명이 수감되었다. 이들은 학생, 종교인, 교사 등 지식층은 물론이고 상인, 자

영업자, 노동자 등 70여 종에 이를 정도로 직업이 다양하고 연령대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를 통해 3·1운동이 전 계층이 참여한 민족운동이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 수감자들은 일제로부터 정치사상범으로 취급당하여 99% 이상이 6개월 이상의 형량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이에 따라 삼일절 하면 떠오르는 곳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되었고, 개관을 앞둔 독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역사관 인근에 건립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 근현대사의 산교육장

일제에 맞선 투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서대문형무소는 국가 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정한 항일·독립운동 등록문화재 가운데 유일하게 역사관으로 재탄생한 장소이다.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현재는 외국인과 국외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꼭 들리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또한 정치인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는데,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삼일절 경축식을 이곳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이곳은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2001년 10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방문하였고, 2015년 8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하토야마 전 총리가 역사관 내 추모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였다. 2017년 8월에는 일본 공명당 중·참의원들이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였고, ‘독립운동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역사를 직시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2019년 7월에는 역사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전시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나 특별전시를 열고 있다. 또한 4개 국어 도슨트

1908년 10월 문을 연 서대문형무소는
1987년 11월 폐쇄될 때까지 80년간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의 신념을 기리기 위해
1998년 11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지만, 삼일절을 맞아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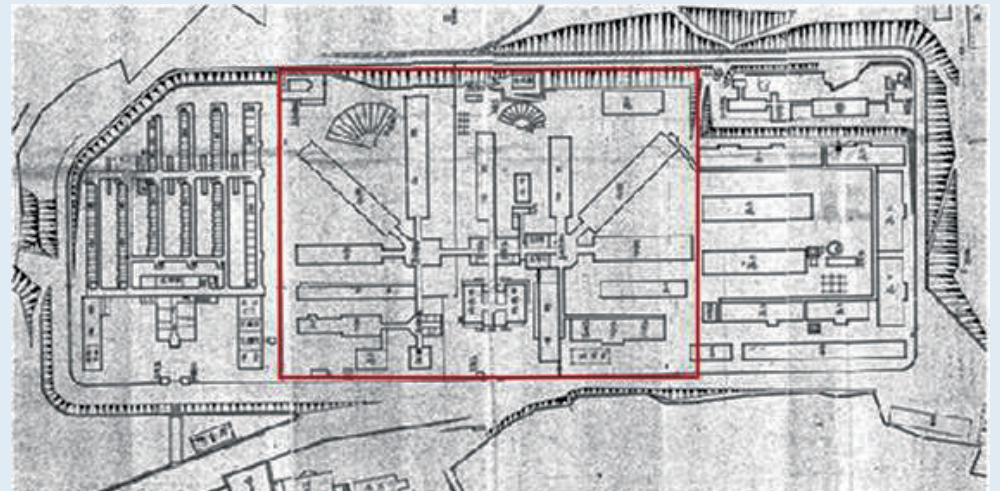
서비스, 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 강좌, 청소년 대상 강좌 및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을 맞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개관한 이래 내·외국인을 합하여 한 해 평균 70만 명을 웃돌던 관람객 수가 2019년에만 100만 명을 넘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 관광 100선’에 포함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다. 1945년 8월 광복 이래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수감되었고 사형을 당한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만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절반의 역사만 보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고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전시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2020년부터 매년 5·18민주화운동 서울 기념식이 치러졌고, 장준하 선생 탄생 100주년(2018.8), 부마민주항쟁 40주년(2019.7) 등의 행사가 개최되는가 하면 매년 8월에는 8·15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열리고 있다.

독립재단으로 격상해야 할 역사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같이 기리는 역사의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지금의 소규모

조직으로는 박물관의 순수 기능인 전시와 연구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많은 관람객을 수용하고 민주화운동까지 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거 서대문형무소를 복원해야 한다. 현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대지면적은 28,112㎡로 본래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복원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원형복원의 명분인 최초 도면이 없다는 이유로 부근 주민들이 경제적 이익 보호와 개발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던 차에 2009년 1월 국가기록원에서 서대문형무소 1936년대 도면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복원에 대한 주장이 탄력을 받았다. 2009년 1월 말 문화재위원회가 서대문구청의 종합복원계획을 조건부로 가결하였고, 서대문구청은 전체 3단계 복원정비안을 다듬었다. 그러나 복원 비용 마련을 두고 뽀족한 대안이 없어 차일피일 미뤄졌고, 2021년 이후에서야 구치감과 부속창고 등이 선별적으로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독립재단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현재 역사관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역사적 가치나 위상에 맞지 않을뿐더러 막대한 재정을 총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까지 아우르는 손색없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1936년 서대문형무소 배치도이며, 표시한 부분이 현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부지이다.



소녀와 투사 사이 웅크린 시간 속으로

또 다른 아픔을 마주한 어느 감독의 이야기



김순악(1928-20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

소리 없이 끌려간 소녀와 소리 내어 비극을 외친 할머니.
단편적인 두 가지 모습에 가려져 외면당한 역사가 있다.
전시 성폭력 피해자에서 전후 성매매 대상자로,
그리고 기지촌 생활까지 이어진 故 김순악 선생의 삶이다.
행여 누가 볼까 웅크리기 바빴던 그의 어두운 시간에
조명을 비춘 이가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보드랍게>
감독 박문철이다.

Q 영화 <보드랍게>는 어떤 질문으로 출발하였나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들은 주로 위안소
피해 사실을 밝힌 이후 투사가 된 모습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이들이 수십 년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이의 시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였어
요. 아무도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을 때 '이들이 어
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어떻게 생존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전시 성폭력이 전후 성매매로, 그리고 기지촌 생활로 이어진
현실은 그동안 '위안부' 담론에서 누락되고 간과된 고리였기
에 이때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Q 주인공 故 김순악 선생을 소개해 주세요.

1928년 경북 경산의 한 소작농 집안에서 태어난 김순악 선
생은 16세 때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만주를 거
쳐 중국 장자커우(張家口) 시골마을에서 성폭력을 당한 일본
군 성노예 피해자입니다. 광복 이후 극적으로 한국에 돌아왔
지만, 유곽과 술집 그리고 미군 기지촌에 팔려나가 원치 않
은 '색시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아들을 홀로 키운 선생
은 식모살이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2000년 즈
음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만난 선생은 '위안
부 운동'에 나서며 새로운 삶을 맞이하였고, 말년에는 압화공
예 작가로 활동하기도 하였어요. '내가 죽어도 내게 일어났던
일은 잊지 말아 달라'고 유언한 선생은 2010년 1월 하늘의 별
이 되었습니다.



영화 <보드랍게> 장면들

Q 유독 선생의 사연을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카이브 영상에서 만난 끼와 흥이 넘치는 선생의 모습이 인
상적이었습니다.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법이 없는, 직설적인
화법을 가진 '깡패할매(영화 속 표현)'같은 캐릭터에 매료되
었어요. 물론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겪은 사연이 너
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다가왔지요. 그렇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을 알려야겠다'라는 절실함이 들기도 하였
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흔히 '위안부'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피해자들을 묶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한 분 한
분의 캐릭터와 삶의 여정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하나로 묶기보다는 각자 다른 사연과 이야기를
세밀하게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선생의 생애를 여러 여성이 낭독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안부' 이슈를 과거지사로 생각합니다. 혹은
이미 모든 쟁점들을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이렇듯 '고
정된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
너머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를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마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동시대 젊은 여성의 얼굴과 목소리로
과거 증언을 낭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
의 젊은 목소리로 '위안부'의 삶을 낭독하면 새로운 마주침,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감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화 속 김순악 선생의 삶을 재현한
이재일 작가의 애니메이션

Q 낭독에 빗대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나요?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에 선생이 살면서 들었던 여러 호칭을 여러 여성의 목소리로 낭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다양한 이름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선생도 ‘위안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안고 살아간 ‘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프닝에서는 선생의 다양한 호칭을 들은 관객들이 ‘인간 김순악’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를 바랐고, 영화 말미에서는 똑같은 음성을 들은 관객들이 처음과는 다른 느낌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각 호칭이 갖는 삶의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Q ‘보드랍게’라는 제목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있나요?

영화 속 선생의 구술 중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랬구나, 하이고 참, 애 묵었다.” 이렇게 보드랍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워낙 굴곡진 삶을 살아왔기에 ‘평생을 남들이 자신

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환대해주기를 바라셨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환대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제목을 ‘보드랍게’로 정하였습니다.

Q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과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아름다운기러기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 후 가장 먼저 영화의 주인공인 선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기쁘고 보람이 있었어요. 또한 이번 작품은 그동안 제가 해왔던 작업과는 여러모로 달라서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상을 받고 나니 ‘제가 했던 고민들이 틀리지는 않았구나’라고 스스로 위안 받았습니다.



박문철 감독 인터뷰 중

“피해 생존자들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증언과 자료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들을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새겨듣고, 새롭게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시켜보는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보드랍게〉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김순악 선생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영 중

개봉 : 2022.02.23.
감독 : 박문철
주연 : 김순악, 안이정선, 이인순, 송현주
장르 : 다큐멘터리
등급 : 전체 관람가
배급 : 인디플러그

Q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보드랍게〉는 과거 ‘위안부’를 다룬 영화와는 달리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김순악 선생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안부를 다룬 영화는 보기 힘들다’라고 지레 생각하기 쉬운데, 선생의 매력에 푹 빠져들다 보면 웃음과 감동 그리고 공감과 위로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Q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남겨진 자들에게는 ‘피해 생존자들의 삶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남긴 증언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와 같은 숙제가 남겨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당사자들의 증언과 투쟁에 많이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 생존자들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증언과 자료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들을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새겨듣고, 새롭게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시켜보는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숙제를 미리 수행하는 심정으로 〈보드랍게〉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생존자들의 말과 삶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좋은 작품들과 뜻깊은 대화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독립운동의 뿌리

호세 리살 Jose Rizal

3G 획득을 위한 식민지 지배

1525년 스페인은 루손 섬 상륙을 시작으로 필리핀 군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북부의 루손 섬과 중부의 비사야스 군도에는 인구와 영향권 차원에서 외래인의 침투에 조직적으로 대항할 만한 규모를 갖춘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스페인은 이 지역에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었으며,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다른 유럽 세력들보다 250~300년 앞선 16세기 후반에 식민지 국가를 건설하는데 성공하였다. 스페인이 동방으로 진출해 획득하고자 한 것은 '3G(Gold 부의 획득·God 기독교 복음 전파·Glory 왕의 영예)'였다. 1543년 당시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재위 1556~1598)의 이름을 따 점령 지역을 'Filipinas(필리핀)'라 명명한 것으로 왕의 영예는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필리핀을 인구 수천만 명의 가톨릭 국가로 만들었으니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 등 다른 경쟁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 복음 전파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3G 목표 중 부의 획득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필리핀 군도에서는 향료(정향·육두구·메이스)가 나지 않았고 남아메리카 페루의 은처럼 값나가는 자원도 없었기 때문이다.

계몽 지식인층 일루스트라도스의 탄생

스페인 식민 정부는 부의 획득을 위해 중국과의 교역을 시도하였다. 북부 필리핀은 지리적으로 도서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유럽 세력의 견제와 남부 중국 해안에 들끓던 해적들이 큰 장애였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남아메리카 제국과 아시아 제국의 물자를 아카폴코와 마닐라에서 교환하는 '갈레온 무역'이었다. 식민 지배 초기 스페인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 대상이었던 갈레온 무역에 집중하는 동안, 식민지 개발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1810~1820년대 스페인 남아메리카 식민지들이 서서히 독립

1899년 미국이 스페인을 대신해 필리핀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당시 필리핀 전체 인구의 대략 7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명의 병사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는 독립을 향한 필리핀인의 강력한 열망이 분출된 것인데, 그들의 희생 이전에 필리핀 독립운동에 불씨를 지핀 호세 리살의 헌신을 기억해야한다.

하기 시작하였고, 그 여파로 갈레온 무역은 18세기 말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수입원이 필요해진 식민 정부는 국제 시장을 겨냥한 황금 작물 재배에 집중하였다. 스페인은 필리핀을 점령한 지 200여 년이 흐른 뒤에나 식민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아시엔다(대농장)가 개발되면서 필리핀 사회에 계층 분화도 시작되었다. 처음 대농장에 투자할 수 있었던 사회 계층은 세 부류였다. 토지를 매입해 보유한 국왕령 출신 스페인인, 교회, 그리고 중국인과 현지인 혼혈인(중국계 메스티소) 상업 자본가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대농장을 직접 경영할 수 없는 부재(不在) 지주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주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그것을 다시 농민에게 임대하는 임대차농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임대차 농업을 통해 부를 축적해서 토지를 사들여, 대규모 환금작물 농장을 직접 경영하는 재지(在地) 지주층이 새로이 형성되었다. 이들 새 지주층은 교육에 열성적으로 투자하여 마닐라뿐 아니라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각지로 자녀를 유학 보내었다. 스페인의 식민지 개발 사업은 필리핀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가 된 계몽 지식인층인 이른바 '일루스트라도스'가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 되었다.

새롭게 정의한 운명 공동체 필리피노

19세기 후반, 많은 수가 중국계 메스티소 가문 출신인 일루스트라도스는 스페인에서 태어나 필리핀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는 페닌슐라레스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 정치·농업·교육의 개혁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프로파간다(청원)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필리핀을 스페인의 종복이 아닌 가족으로 대해주기를 요청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였다. 중국계 메스티소의 후손으로 태어나 필리핀 독립운동을 지도한 '호세 리살(Jose Rizal)'은 대표적인 프로파간다주의자 중 한 사람이다. 이 운동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리살이 '필리피노(필리핀인)'라는 운명

공동체의 개념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필리피노는 본래 필리핀에서 태어난 스페인 혈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여기에는 일부 스페인계 메스티소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리살은 인도, 중국계 메스티소 그리고 스페인계 메스티소 모두를 필리피노로 묶었다. 즉 그는 필리피노라는 명칭을 필리핀과 운명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한 것이다.

식민지 지배 모순을 알린 저술 활동

1882년 의사가 되기 위해 필리핀에서 스페인으로 유학을 간 리살은 1887년 스물다섯 살이 되던 해 『놀리 메 땅헤레Noli Me Tangere』라는 소설을 출간하였다. '놀리 메 땅헤레'는 본래 '나를 만지지 말라'는 뜻으로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후에 '악성 궤양', '종양' 등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이 때문에 소설의 제목이 '암(cancer)'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였다. 리살은 식민지 시대 스페인 사제들의 악행을 도려내야 할 질병에 비유한 것이다. 식민지 지배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한 이 소설은 당시 스페인의 문화계와 마드리드의 지식인층, 학생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스페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스페인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결국 그의 서적은 스페인에서 불온서적이 되었으며, 리살은 스페인 정부의 추방령에 따라 퇴학당한 후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필리핀 혁명의 시발점

고향으로 돌아온 리살은 1892년 필리핀 독립운동의 지도 기관인 필리핀 연맹을 결성하여 스페인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민족의 자각과 해방의 기운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그는 독립활동에 주목한 스페인 총독부에 의해 체포되어 민다나오 섬 다피탄으로 유배되고 말았다. 이후 무장 투쟁론자들의 배후로 지목된 리살은 1896년 마닐라 북쪽 산티아고 요새에서 공개 처형되었다. 그의 죽음은 온건한 프로파간다 운동의 종식을 의미하는 한편, 식민 압제에 대한 급진적인 저항 행동을 부르는 자극제가 되었다. 이로써 필리핀 혁명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이 시발점은 필리핀 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안드레스 보니파시오가 주도하는 혁명운동으로 나타났다. 프로파간다운동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리살의 영향을 받은 그는 1892년 7월 7일 중부 루손에서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자손 연합(까띠뿌난)'이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곧 중부 루손의 소작인과 농업 노동자들이 합세하여 대대적인 대중 봉기로 발전하였다. 현재 리살이 처형당한 장소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리살 공원(Rizal Park)'이 세워졌고, 공원 한쪽에는 그의 처형 장면을 재현해 놓은 동상들이 설치되었다. 또한 그가 수감된 산티아고 요새 감옥 근처에는 '호세 리살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호세 리살 Jose Rizal (1861-1896)



필리핀 리살 공원에 세워진 호세 리살 동상



호세 리살 초상화(후안 루나작, 1894)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독립기념관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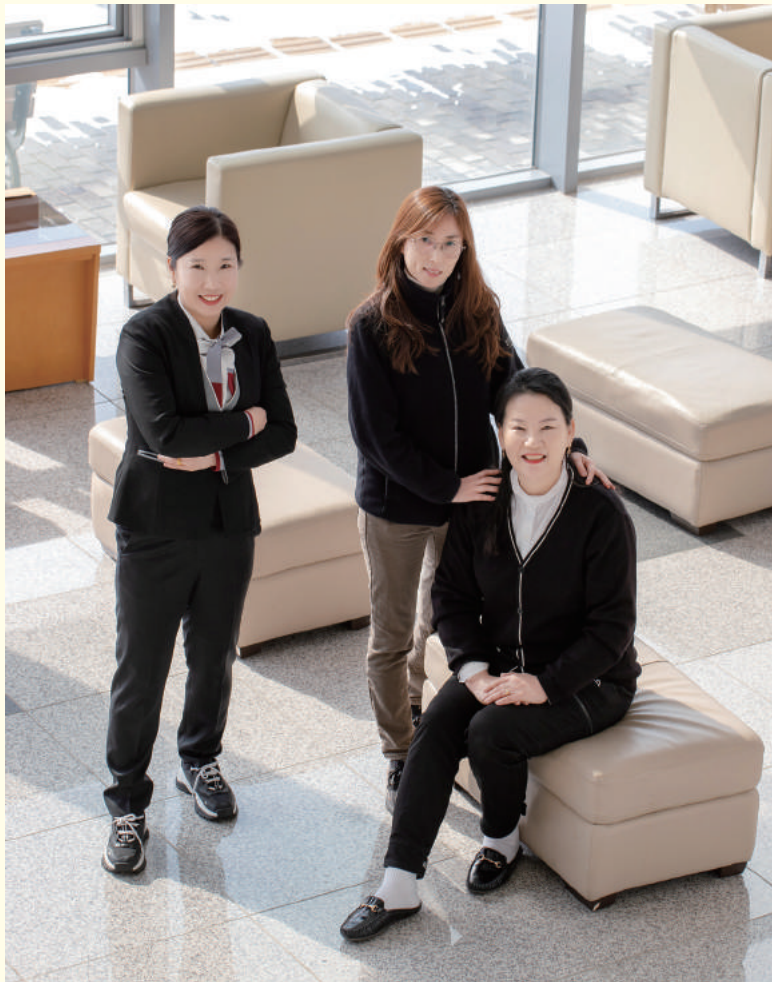
독립기념관에 들어서면 상냥한 목소리가
입장객을 맞이한다.

바로 주차료내는곳과 종합안내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음성이다.

독립기념관에 방문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토씨 하나 놓칠세라

이들의 귀는 늘 쫓곳 서있다.

매일 수많은 입장객들을 응대하느라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뒷전으로 미뤘을 것이니,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본다.



차량으로 독립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바로 주차료내는곳에서 근무하는 김현숙 씨이다. 이곳은 독립기념관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곳으로 늘 경쾌한 환영인사와 정중한 안내가 필요하다. 계절에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 우리를 맞이하는 그의 원동력이 궁금하다.

방문 차량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김현숙입니다



① A. 주차료내는곳은 전시관보다 한 시간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에 장애물이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입장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② A. 퇴근 후 집까지 이어지는 업무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듯한 마음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을 앞당겨서 퇴근하는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저에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③ A. 입장객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짧게라도 인사를 건네실 때 기운이 납니다. 반면에 주차비 지불에 대한 불만과 업무와는 관련 없는 불쾌한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속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다시 위안을 받고 힘을 내고는 합니다.

④ A. 이곳은 독립기념관을 차량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의 첫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입장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기 위해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독립기념관의 최전방이라는 소명의식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⑤ A. 단순히 요금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대처하며 고객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친절한 직원에서 더 나아가 독립기념관과 이용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Q

- ① 하루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 ② 업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③ 기억에 남는 입장객이 있나요?
- ④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원동력이 있나요?
- ⑤ 입장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단순히 요금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대처하며 고객과 소통하고 싶어요.”

+ 주차요금 안내

구분	요금	비고
소형	2,000원	25인승 미만
대형	3,000원	25인승 이상
감면	1,000원	장애인, 경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병역이행 명문가
면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정기 휴관일: 월요일(주차장 무료 개방, 공휴일 및 특별 개관 시 유료)

※ 문의: 041-560-0764

독립기념관을 둘러보다 보면 여러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때 가장 먼저 찾는 건물이 바로 종합안내센터이다. 독립기념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을 응대하는 곳인 만큼 심신이 지칠 만도 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윤정숙, 안희수 씨 입가에는 언제나 미소가 묻어있다. 입장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다는 이들을 만나본다.

입장객들의 편리함을 위한 종합안내센터
윤정숙, 안희수입니다



① 윤. 근무 자리를 깨끗이 정돈하며 입장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오늘은 어떤 문의와 일들이 펼쳐질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방문하는 입장객들이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는 합니다.

② 안. 현재는 국군 병사 휴가 프로그램 문의가 가장 많아요. 프로그램을 마치면 휴가증에 인증 도장을 받아야하는데, 그 도장을 찍어주는 업무를 이곳에서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종합안내센터는 언제나 많은 군인들로 북적입니다.

윤. 다만 가끔 안타까운 상황도 생겨요. 군인들이 최소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있어서 접수시간에 제약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방문한 군인들을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③ 윤. 독립기념관을 둘러보시고 돌아가실 때 많은 분들이 이곳 종합안내센터를 찾아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다만 저희 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요구하시면 곤란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야외 산책길과 안내센터 앞에 설치된 분수대에서 여름철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끔 발생하기라도 하면 제 가슴도 같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④ 안. 입장객들의 따뜻한 한마디에 힘을 얻지요. 예전에 제가 안내한 일정대로 관람을 마친 군인이 다시 센터로 돌아오더니 저를 보며 “저 왔어요!”라고 외치더라고요. 해맑게 웃으며 저를 반기던 청년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그보다 더 고마워하는 입장객들을 대할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Q

- ① 안내센터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 ② 주로 어떤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 ③ 매일 여러 사람을 응대하면 지치지 않나요?
-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힘을 얻나요?
- ⑤ 코로나 이후 달라진 부분이 있을 텐데요.

윤.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이가 벌에 쏘여 상비해둔 연고로 간단하게 처치를 해주었을 뿐인데, 아이의 부모님이 음료수를 건네주시면서 연신 감사인사를 전하더라고요. 아이만 아프지 않았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⑤ 안. 코로나19 이전에는 센터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많은 입장객들로 가득 찼었어요. 그때는 쉴 틈 없이 응대하느라 목이 아플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엔 발이 많이 끊겼어요. 웅성웅성,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의 소리가 그림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환경이 제자리를 찾아서 예전처럼 많은 입장객들을 만나고 싶어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많은 입장객들을 뵈고 싶어요."

⊕ 이용 안내

입장료 무료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관람시간 09:30~18:00
동절기(11월~2월) 관람시간 09:30~17:00

정기 휴관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입니다.
단, 상설전시관 외 야외전시, 쉼터 등은 개방합니다.

이용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



1. 국군휴가 보상프로그램
확인증을 발급받고 싶어요!

모바일앱 이용 발급순서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 다운로드 → 독립기념관 선택 → ‘국군 휴가 인증’ 메뉴 선택 → 휴가자 정보 등록 → 독립기념관 방문 → 모바일앱을 실행하여 전시관 관람 및 퀴즈 풀이 → 확인증 발급(종합안내센터 방문 필요 없음).

종합안내센터 방문 접수시간
하절기(3월~10월) 09:30~16:20
동절기(11월~2월) 09:30~15:20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



2. 현재 대면 전시해설
이용 가능한가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전시해설을 잠정 중단하고, 온라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해설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코로나19 방역대책 완화에 따라 대면 전시해설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재개 후 사전 온라인 예약을 하시면 전문 해설사의 전시관 해설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대면 전시 해설서비스

종합안내센터 안희수가 추천하는 산책길



따스한 봄나들이 <백련못 산책길>

독립기념관 정문에서 겨레의탑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백련못은 흑성산에서 흘러내린 50,000톤 물이 모인 곳으로 약 26,446m²의 면적에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따스해진 3월 가족 나들이는 물론 연인과 함께 걷기에 최고의 장소로 추천합니다.

종합안내센터 윤정숙이 추천하는 맛집



건강 재료를 더한 백숙 요리 <산집>

독립기념관에서 8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산집>에서 푸짐한 오리능이백숙으로 맛과 건강을 함께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어릴 적 할머니 집에 놀러간듯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호명 산집
대표메뉴 오리능이백숙
주소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737-12
문의 041-551-3174

한류를 넘어 K-Spirit을 향하여

한국 랜드마크로 자리할 독립기념관

Korean wave

2021년은 대한민국에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 첫째, 2021년 7월 2일 열린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그룹 A(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 지위를 변경하여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임을 자타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속에서도 4%대 경제성장, GDP 2,000조 달성(세계 10위), 무역규모 1조 2,000억달러(세계 8위)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자리하며 경제적 성장을 보였다. 셋째,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에 이은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 조연상 수상, 배우 오영수의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수상, BTS(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POP 열풍 등으로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진정한 선진국임을 세계인에게 각인시켰다.

인류사에 공헌하는 정신의 한류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볼 것이 있다. ‘대한민국이 인류사에 공헌하기 위한 한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여야 할까’라는 물음 말이다.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각종 문화산업을 넘어 궁극적으로 인류사회에 던질 수 있는 정신적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자문 말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트렌드나 유행으로서의 한류가 아니라 인류의 정신문화에 공헌하는 한류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민주, 프랑스의 평등, 미국의 자유

자타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G7, 그 중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어가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을 예로 들어본다. 영국은 인류에게 민주라는 가치를 선사한 나라다. 영국의 역사에서 의회가 처음 열리기 시작한 1275년부터 수백 년에 걸친 영국식 의회민주주의는 전세계 민주주의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고 그리하여 그 상징인 국회의사당과 빅벤은 영국 관광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프랑스는 18세기 프랑스혁명을 통해 인류에게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사하였다. 단두대의 피비린내 나는 근대사를 통해 중세의 속박과 신분사회로부터 평등과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인류에게 선사하였다. 이 때문에 세계인은 누구나 프랑스를 선진국이라 인정하고, 프랑스를 여행할 때 바스티유광장, 콩코드광장 등 그 혁명의 현장들을 둘러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자유다. 1886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이 그것을 말해준다.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허드슨강 입구의 리버티섬에서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기회의 땅, 미국이 세계인에게 선사한 정신적 가치는 바로 자유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선진국들은 그 나라가 인류에게 선사하는 정신적 가치, 즉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2

한류를 넘어 K-Spirit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싸워왔고, 무엇을 그토록 원해왔으며,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피 흘려왔는가.

문화의 한류를 넘어 인류사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류가 추구해야할 궁극적 가치는 평화가 아닐까. 축석루에서 왜장의 목을 안고 남강에 뛰어든 것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였고, 행주산성의 아낙네들이 치마폭에 돌을 나르면서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등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이 땅에서, 중국에서, 연해주에서 그토록 목숨을 바쳐 꿈꾸던 것도 바로 조선의 독립과 평화가 아니겠는가. 그것은 일찍이 3·1 독립선언서에도 33인이 분명히 제시한 바가 있다. 이는 조선의 독립을 세계평화라는 궁극적 가치로 귀결시킨 것이다.

“오늘 우리가 조선 독립을 선포하는 까닭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변역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 세계 평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동양 평화를 실현하여 전 인류의 복지에 반드시 있어야 할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3·1 독립선언서 중

한국의 랜드마크는 곧 독립기념관

전 세계인들이 평화를 떠올리면서 한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가 봐야 할 관광랜드마크는 바로 독립기념관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지만, 독립의 역사와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기록을 오롯이 보존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에 독립기념관이 아말로 제국주의, 패권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인의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만의 자랑인 것이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나만의 목소리를 내세요.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76차 유엔총회에 청년세대 대표로 참석한

BTS(방탄소년단)의 발언 중

2021년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은 ‘BTS(방탄소년단)’의 유엔총회 연설을 다시 되짚어본다. 우리를 문화선진국으로 만든 BTS의 연설이 가진 키워드 또한 평화인 것이다. 이에 한국 관광 최고의 인증샷이 남산타워도 땅굴도 명동도 아닌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계인에게 평화라는 가치를 선사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Spirit

03



37

01



Global Standard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QUIZ TIME

이번 호 「독립기념관」을 읽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꼼꼼히 읽다 보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WHO?

- 1) 1922년 3월 27일 거사를 실행하기 전, 김익상·오성륜·이종암은 일본군 육군대장이자 남작인 000 000를 사살하기 위하여 상하이 황포탄 부두에 나가 현장을 점검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06-09페이지 참조)
- 2) 경성여고보생들은 ‘일편단심’을 의미하는 빨간 000를 수천 개 만들어 경성고보에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0-23페이지 참조)

지난 호 퀴즈 정답과 정답자를 공개합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

1. 조선청년독립단
2. 대한여자애국단

지난 호 퀴즈 당첨자

김진균, 김창신, 박성민, 손민식, 송영임
심규태, 엄길중, 이호준, 지성훈, 최현정

퀴즈에 응모해 주세요.

웹진-독자이벤트 바로 가기

3월 23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쿠폰(아메리카노)을 보내드립니다.



엽서도 가능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월간 독립기념관 담당자 앞 ※ 이름, 연락처 기재

「독립기념관」 웹진 '어쩌다 이벤트' 실시

Web-zine
EVENT

독립기념관 웹진 2월호 '어쩌다 이벤트'에는 99, 199, 228번째로
입장한 손미라, 정래혁, 이단비 님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웹진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께는
모바일 커피쿠폰(아메리카노)을 보내드립니다.
웹진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간 「독립기념관」

무료 구독 신청 및 해지, 주소 변경 방법 전 화 041) 560-0244 | E-mail sunny@i815.or.kr

공공 언 땅을 뚫고
새싹이 빼꼼 고개를 드는
바야흐로 3월입니다

뺨을 스치는 싱그러운 봄 향기에
우리 민족사의 봄을 재촉한
선열들의 정신이 배어있습니다

일제에 대한 저항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절실하고 소박한 감정으로 노래한
이상화 시인의 시구를 되새겨보며

빼앗긴 땅과 주권을 수호하고 되찾기 위하여
투쟁한 선열의 뜻을 기려봅니다

“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맛볼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중

